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4년 2월
교육학석사(체육교육)학위논문

스포츠폭력문화와 축구심판활동에 대한 실상 고찰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이 대 로

스포츠폭력문화와
축구심판활동에 대한 실상
고찰

(A Study on the Practice of
Sports Violence Culture and
Football Trial Activities)

2024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교

체육교육전공

이 대 로

스포츠폭력문화와
축구심판활동에 대한
실상 고찰

지도교수 김 옥 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체육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이 대 로

이대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김현우 인

위원 백승헌 인

위원 김옥주 인

2024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 문제	3
4. 연구의 제한점	4
5. 용어의 정의	4
II . 이론적 배경	6
1. 축구심판	6
2. 축구심판의 역할	8
3. 스포츠평력	10
4. 스포츠평력의 원인	11
5. 스포츠평력의 유형	12
6. 스포츠평력의 사례	13
7. 스포츠평력 예방 행동 지침	14
8. 스포츠평력 예방을 위한 교육	14
III . 연구 방법	16
1. 연구 대상	16
2. 관찰 기간	18
3. 조사 연구	18

IV. 연구 결과	23
1. 축구심판 관찰	23
2. 축구심판 면담	26
V. 논의	34
1. 축구심판활동 관점 차이	34
2. 축구심판 면담 관점 차이	36
VI. 결론 및 제언	40
1. 결론	40
2. 제언	41
참고문헌	42

표 목 차

<표 1> 대한축구협회 축구심판 급수별 관장 경기 구조	8
<표 2>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17
<표 3> 면담 질문 내용	21
<표 4> 축구심판활동 만족성의 면담 내용	26
<표 5> 축구심판활동 중 스포츠평력을 경험한 사례의 면담 내용	27
<표 6> 축구심판활동 장점의 면담 내용	29
<표 7> 축구심판활동 단점의 면담 내용	30
<표 8> 축구심판활동 개선방안의 면담 내용	32

ABSTRACT

A Study on the Practice of Sports Violence Culture and Football Trial Activities

Lee dae-ro

Advisor : Prof. Kim Ok-Ju Ph.D.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desirable soccer referee activity process for new referees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Korean soccer community in the future by analyzing and identifying cases and impacts of sports violence in the referee activity process.

Participants in this study selected 11 soccer referees from the Jeonnam Football Association, who were members of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who had experienced sports violence. In order to analyze the opinions of the study participants in detail and in-depth,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s during qualitative studies,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used for in-depth interviews were used, and the results of the collected data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desperately appealed that sports violence they experience and feel should never be inflicted, that they

should create systematic and specific program activities to alert soccer referees, and that changes in the perception and respect of soccer referees are needed.

Second,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mentioned that appropriate intervention and counseling are needed for soccer referees who are suffering from extreme stress and mental pain due to stress and aftereffects from sports violence.

Third,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mentioned that it is a good way to connect a professional counseling center to receive expert counseling, but active intervention such as a sports violence support program for soccer referees is necessary.

Fourth,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suggested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sports violence in soccer referees, and noted that if the human rights of soccer referees are not guaranteed, the culture of sports violence is daily and customary, and the lack of prior education to prevent Korea.

As a result, various applications and applications are needed for soccer players who make up the soccer world, away from the view that the problems of soccer referee sports violence are passed on only to soccer referees, and more systematic and specific education, including psychological counseling on grievances that cannot be solved directly, should be provided. In conclusion, all those who love soccer around them, not the efforts of individual soccer referees who have experienced sports violence, should work together to form a desirable and positive soccer referee culture. More specific and systematic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soccer referees who will be stressed and worried about retirement due to such mental pain, and future research should continue focusing on soccer referees who have experienced sports violence.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해마다 국내 스포츠계에서 일어난 스포츠평력은 참혹한 결과를 나타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상습 성폭행 사건, 한국 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 성폭행 사건, 경주시청 철인 3종 팀 폭행 등 가혹행위 사건, 프로축구 광주FC 횡령, 비리 사건 등 여러 사건은 이후에도 폭로는 계속되고 있다(권순신, 2020).

스포츠계의 폭력은 사라지지 않는 잠재적 존재임과 동시에 스포츠인들이 극복해야 나아가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일반 학교폭력과 비교해 스포츠평력은 성인이 되어서도 폭력적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보고하지 못하는 스포츠 현장의 폐쇄적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임건우, 2022). 폭력은 신체적 폭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언어폭력을 포함해 강압적인 규제, 통제, 감시 등 폭력적인 문화 또한 폭력에 해당한다. 과거와 비교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스포츠평력은 여전히 매우 일상적이며 광범위하고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김동규, 2019).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무섭다. 스포츠 관계자들은 ‘약간의 체벌은 경기력 향상과 정신력 강화에 필요한 훈련의 일부’ 이라고 말한다(김혜림, 2021). 스포츠평력은 폭력을 훈련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식하는 폭력의 내면화 현상을 일으킨다. 어린 나이에 폭력을 경험하게 성장할수록 심각한 경향이 커진다. 이는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대물림을 낳기도 한다. 스포츠 위계질서와 조직의 집단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스포츠평력의 연결고리는 끊어지기 힘들다. 폐쇄성으로 인해 폭력이 발생했을 때 외부로 즉각적으로 알려지기 어렵고 개인이 주체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 폭력에 익숙해진 선수들이 입는 피해는 막대하다(임건우, 2022).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려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 조사를 시행했다.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조사다. 응답자는 중학생 선수 21,952명, 고등학생 선수 17,598명, 대학생 선수 4,924명, 실업 선수 1,251명, 장애인 선수 1,576명이다. 조사 결과 신체 폭력의 경우 10명 중 1명 이상이 피해 경험이 있었고 특히 대학생 선수는 3명 중 1명이 신체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하였다. 신체 폭력의 가해자는 지도자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선배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선수로 갈수록 선배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주었다. 그중 신체 폭

력을 당했을 때 나이가 어릴수록 폭력의 원인을 자신으로 돌리며 자신이 당한 폭력을 정당화했다는 점은 자세히 보아야 할 부분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또한 스포츠 분야 폭력은 피해자의 극심한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불안, 분노, 우울, 공포 소외감과 같은 정서적 피해로 이어진다. 피해자는 운동선수로서 자긍심이 훼손되어 의욕이 상실되고 운동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어떤 이유로도 절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직접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이용한 괴롭힘과 피해자에 불이익을 주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를 근절할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일시적 관심은 단기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이 스포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펼쳐야 한다. 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피해자 관점에서 가해자와 철저히 분리되지 못하면 비방 회유, 협박 등 또 다른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숨방망이 처벌로 스포츠 현장에 다시 복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폭력 없는 스포츠계를 구축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홍덕기, 2021). 스포츠폭력에 대한 사건의 분석은 다방면적이지만 그 사건의 발생하는 해결방안과 원인 분석에 대한 구조적 맥락과 향후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미비하고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구심판의 스포츠폭력의 유형, 사례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김동규, 2019).

축구심판 문화에도 스포츠폭력이 있으면서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다. 물론 축구심판도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집단으로 모여서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생활을 한다. 그러나 축구심판도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체이다. 축구심판의 판정은 경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선수들과 관중, 지도자와 축구관계자에 이르기까지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김배성, 2019). 축구심판은 경기장 외적, 내적 직무상으로 발생하는 경기 중의 판정 항의, 불합리한 배정, 선후배 관계 등으로 인해 스포츠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로 인해 지나친 긴장, 집중력저하, 자신감 저하 등의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축구 경기 운영 중의 판정 실책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박해용, 2000).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축구심판의 직무와 그에 따른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직무 조건과 외부환경이 열악하여 축구심판들이 직무 불만족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비활동 혹은 은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장연환, 2017).

선행연구에는 한국 스포츠 심판의 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검증(박해용, 2000). 축구심판의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관계(김이정, 2014). 축구심판의 성격유형이 심판 스트레스와 판정수행에 미치는 영향(김배성, 2019). 축구심판의 권력거리성향과 직무과부하, 직무스트레스가 직업정체성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김동진, 2020). 축구심판 직무스트레스가 감정고갈,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문경수, 2022). 등과 같이 축구심판의 직무에 관한 스트레스로 인해 문제점으로 인한 축구 경기 도중의 판정 실책으로 나타내는 연구뿐이다. 외적인 원인에 관해서 연구를 진행했고 보다 구체적인 내적인 원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폭력이 축구심판활동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므로써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스포츠폭력이 근절되지 못한 원인과 새롭게 생겨나는 스포츠 폭력에 대한 현실의 장벽과 앞으로 축구심판문화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축구심판 활동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2. 연구의 목적

대한민국 축구 시스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구심판의 역할이 중요하다. 축구심판 제도의 현황과 스포츠폭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축구심판 문화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스포츠폭력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했던 축구심판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폭력 사례와 이에 따른 축구심판활동 과정 속의 실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축구심판 문화에 스포츠폭력이 근절되었으면 바람이고, 축구심판들에게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축구심판 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축구심판이 스포츠폭력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축구심판 업무적 환경 변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축구심판으로써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연구 자료를 제공할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문제

본 연구는 축구심판 활동 중 스포츠폭력으로 인해 심판 활동의 실상을 탐구하여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알아보며, 문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스포츠평력의 개념과 유형, 사례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스포츠평력으로 인한 축구심판들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스포츠평력을 근절하려는 개선방안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대한축구협회 소속으로 전남축구협회 심판 총 11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전남축구협회 심판들은 축구 종목의 대표적인 이해집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큰 틀로 볼 때는 작은 집단이기에 큰 틀로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 있으며, 연구를 수행하는 데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축구 종목으로만을 선정하였으므로 모든 스포츠 종목에 대입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고, 대한축구협회 소속 중에 일부의 전남 소속 심판들로 대입하여 한계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스포츠평력을 경험한 축구심판을 대상으로 질문형 면담형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의 견해에 의해 분석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5. 용어의 정의

1) 스포츠평력

스포츠 경기중에 스포츠평력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공격적인 행위이다. 힘이 있는 자가 약자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으며, 자신의 팀 동료와 상대방 선수에게 물리적인 무력과 힘을 사용하여 위협하므로 부상, 위협, 상처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일어나는 것을 스포츠평력이라 말할 수 있다(김동규, 2019). 또한 폭행, 신체적 학대 등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폭력이란 폭행, 협박, 모욕, 강요와 강제적인 심부름, 집단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한체육회, 2019).

2) 축구심판

축구에서 심판은 경기상황에 따라 경기규칙에 입각하여 경기를 운영하고 정확하게 판정하는 중립적 존재이다(김상우, 2016). 일반적인 축구경기에는 주심 1명과 부심 2명으로 진행되며 선심, 대기심 등을 둔다(IFAB, 2023). 정해져 있는 경기규칙에 따라서 경기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판정을 내려야 하며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축구 경기상황과 내용에 따라서 경기를 운영을 폭넓은 이해와 바탕으로 경기를 일관성과 공정성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그에 따른 판정을 내리는 중립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곽경만, 2007).

II . 이론적 배경

축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 종목이며 다른 스포츠 종목과는 다르게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에서 접근성이 쉽고, 나이에 제한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축구 경기에서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축구심판은 필요한 존재이다(곽경만, 2006). 심판은 매 순간 변화하는 경기상황에 따라 경기 규칙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판정하는 역량을 행동화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중립적인 존재이다(Richardson & Weinberg, 1995). 심판은 선수들에게 단순히 경기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경기 내용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와 바탕으로 경기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하여 경기 중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나 부상으로부터 선수를 적절히 보호해야 의무가 있다. 이는 심판이 경기 규칙에 근거하여 원활하고 원만한 경기 운영의 조력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곽경만, 2006). 하지만 축구계에서 축구선수 보호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축구심판 보호와 존중은 미비하다. 심판들도 선수, 지도자, 관중, 축구관계자에게 받는 정신적인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불안정한 감정을 느낀다(김이정, 2014). 그러하기에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 판정을 존중해주며 심판들을 보호하며 지켜주었으면 한다. 또한 축구심판문화에서 선배심판이 후배심판들에게 주는 관심이 심판 임무 수행에 하는 부분을 제외한 지나치게 과도한 사적인 관심은 조절하였으면 하고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방향으로 다가가서 좋은 축구심판문화를 형성하였으면 한다.

1. 축구심판

축구심판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심판을 양성하고 발굴하기 위해 심판의 입문을 앞당겼다. 응시 자격은 나이 만 14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시력은 교정시력 좌우 1.0 이상, 이론시험과 체력테스트, 실기시험을 순서대로 통과해야 한다. 교육기간은 총 연속 4일 또는 2주에 걸쳐 주말 진행한다. 모든 과정이 수료가 되면 자격증을 발급받아 대한축구협회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활동 중인 심판은 의무적으로 체력테스트 1회와 보수교육을 매년 1회 갱신을 해야 한다.

1) 대한축구협회 심판 규정

축구심판은 판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1) 심판으로서의 권위와 품위 및 도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 (2) 경기 도중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3) 경기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반드시 경기 종료 후 별도의 사건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4) 대한축구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 후 심판판정과 관련된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5) 경기와 관련된 금품수수, 부정 청탁 및 승부조작과 관련되는 접촉이 발생 시 반드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
- (6) 대회에 참가한 특정팀과 특수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와 사전에 본 위원회 또는 대회주최 기관에 보고하거나 배정을 기피할 의무가 있다.
- (7) 대회, 경기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배정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2) 대한축구협회 등록 축구심판 현황

현재 대한축구협회 등록 축구심판의 현황으로는 2023년 9월 기준으로 1급 심판에서 5급 심판을 통합한 심판 인원수를 말한다. 서울지역 활동 심판 457명 비활동 심판 854명, 인천지역 활동 심판 123명 비활동 심판 150명, 대전지역 활동 심판 69명 비활동 심판 136명, 대구지역 활동 심판 125명 비활동 심판 214명, 울산지역 활동 심판 141명 비활동 심판 343명, 부산지역 활동 심판 177명 비활동 심판 222명, 광주지역 활동 심판 88명 비활동 심판 166명, 제주지역 활동 심판 85명 비활동 심판 137명, 경기지역 활동 심판 495명 비활동 심판 839명, 강원지역 활동 심판 199명 비활동 심판 345명, 충북지역 활동 심판 100명 비활동 심판 196명, 충남지역 활동 심판 130명 비활동 심판 210명, 경북지역 활동 심판 120명 비활동 심판 260명, 경남지역 활동 심판 180명 비활동 심판 209명, 전북지역 활동 심판 164명 비활동 심판 256명, 전남지역 활동 심판 103명 비활동 심판 177명, 세종지역 활동 심판 32명 비활동 심판 52명으로 총 17개 시도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축구심판과 비활동 중인 통합 7,554명의 축구심판이 있다(대한축구협회, 2023). 대한축구

협회 축구심판 급수별 관장 경기 구조는 다음 <표 1>과 같다.

< 표 1 > 대한축구협회 축구심판 급수별 관장 경기 구조

구분	관장 경기
5급	동호인 경기 주심, 부심 전문축구 초등부 (U-12) 주심
4급	전문축구 초등부 (U-12) 주심, 전문축구 중등부 (U-15) 부심, 전문축구 중등부 (U-14) 주심, 부심
3급	전문축구 중등부 (U-15) 주심, 부심, 전문축구 고등부 (U-18) 부심, 전문축구 중등부 (U-17) 주심, 부심
2급	전문축구 고등부 (U-18) 주심, 부심, 전문축구 대학부 부심, 전문 대학부 (U-20) 주심, 부심
1급	전문 대학부 및 일반부 주심, 부심
국제	국제 경기 및 국내 경기의 주심, 부심
상위급 심판은 하위급 경기를 관장할 수 있다.	

2. 축구심판의 역할

축구에서 심판은 축구 경기의 심판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축구에서 경기 규칙의 준수 여부나 승패를 판정하며 거친 태클 등 반칙 등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결정을 내린다. 축구 경기에는 주심 1명과 부심 2명, 대기심 1명, 그리고 비디오 (VAR) 판독 심판 2명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며, 필요로 추가 부심 2명, 추가 대기심 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주심의 임무

주심의 권위는 경기 규칙 시행과 관련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심에 의하여 경기가 관리되도록 매 경기 주심이 임명된다.

- (1) 경기 규칙을 시행한다.
- (2) 부심, 대기심과 적절히 협조하여 경기를 관리한다.
- (3) 경기의 기록과 계시원의 역할을 한다.
- (4) 주심은 경기 시작 전, 경기 도중, 경기 종료 후에 발생한 기타 사건들과 선수 및 팀임원에 대하여 어떤 징계 조치를 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기 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5) 경기를 관장하며, 플레이 재개를 알린다.

2) 주심의 결정

경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주심의 판정은 최종적이며, 주심은 경기를 재개하지 않았을 때 판정의 잘못을 자각하는 경우 부심과 대기심의 조언에 따라 최종 판정을 바꿀 수 있다.

3) 부심의 임무

부심은 2명이 임명되며 그 임무는 주심의 판정에 복종하고 아래의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다.

- (1) 볼 전체가 경기장 라인을 넘어갔을 때 어느 팀이 코너킥, 골킥, 스로인할 소유권이 있는지 판단할 경우.
- (2)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반칙으로 처벌받아야 할 때.
- (3) 선수 교체를 요청했을 때.
- (4) 주심이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나 반칙 행위가 발생했을 때.

4) 대기심의 임무

대기 심판은 대회 규정하에 임명되며 만일 3명의 심판이 경기 진행 중 임무 수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임무를 대신한다.

- (1) 경기 진행 중에 선수 교체 절차 진행한다.
- (2) 대체 볼을 관리한다.
- (3) 선수와 교체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에 선수의 장비 검사를 할 권한이 있다.
- (4) 경기 전, 중, 후에 주심이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나 반칙 행위의 발생을 주심에게 통보한다.
- (5) 전후반과 연장전을 포함한 경기 종료 직전에 주심이 추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추가시간을 표시한다.

3. 스포츠평력

1) 스포츠평력의 역사

모든 스포츠의 특성상 폭력의 요소가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로마 시대에서 격투는 곧 피의 스포츠였으며, 마야 문명 등에서 스포츠 참여하는 선수들이 경기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중세와 근대 유럽 시대에는 스포츠를 전쟁을 대비하는 일종의 격렬한 훈련으로 생각하였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3). 현대 스포츠는 경기 도중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격렬한 신체적 요소가 아니라,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욕설 같은 불미스러운 스포츠 폭력이 나타났으며, 최근 현대에는 제도와 법의 발달로 스포츠 폭력을 더욱더 강하게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평력은 끊임없이 단절되지 않으며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대한체육회, 2019).

2) 스포츠평력의 개념

스포츠폭력은 선수들 간의 혹은 지도자, 관중, 스포츠 관계자 등 사이에 팀 훈련 과정 중이나 축구 경기 과정 중에 스포츠와 관련되거나 그 밖의 행에 지는 언어

적, 성적, 신체적 폭력행위 등을 행하는 경우로 말한다(최병문, 2009). 폭력은 우리가 시선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기사와 뉴스를 보게 되면 스포츠폭력과 관련한 인터뷰나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심한 과도한 경쟁은 스포츠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선수가 경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실력향상을 위해서 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행위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김동규, 2019). 스포츠폭력은 행위성, 힘의 불균형 요소, 반복성으로 구성되며 행위성은 의도성이나 고의성의 여부와 상관 관계없이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말하며, 힘의 불균형은 관계 안에서 특별한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대부분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행사하는 것이며, 반복성은 단기적으로 발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한체육회, 2019).

4. 스포츠폭력의 원인

스포츠 경기 중 감정적 열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 공격성의 표현을 억제할 수 있는 자아 절제력이 부족하여 생겨 나타나게 된다(노옥뢰, 2023). 스포츠폭력의 정당화, 재생산, 목인으로 축약해서 나타낸다. 우선 폭력의 목인은 ‘불이익이 생길까 봐 걱정되어서’,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보복당할 것 같아서’, ‘신고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스포츠폭력이 암묵적으로 행해진다(김혜림, 2021). 정신력과 경기력 강화, 팀의 응집력 강화 그리고 지도자, 팀 동료, 선후배 관계 사이의 권위주의적이며, 위계질서에 의해 폭력이 정당화되고 있으며, 폭력의 재생산은 지도자, 선수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폭력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이어진다(대한체육회, 2019).

구조적인 측면의 폭력은 상하 수직적인 관계, 불평등한 수직적 관계라는 틀 안에서 나타나는 대한민국 사회생활 모습의 주요 문제의 형태라 볼 수 있다(김동규, 2019). 또한 스포츠폭력은 경기 내용의 과정 중심태도 아닌 오르지 결과 중심태도, 생계가 달린 생존권 문제, 부모들이 폭력을 용인하는 운동문화와 폭력을 보고도 묵인하는 태도에 원인이 있다. 이처럼 문화적인 측면의 폭력은 사람들의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을 밑바탕으로 공통적인 생각들을 잘못된 방향의 문화가 형성되면서 나타나는 폭력이다(김동규, 2019).

5. 스포츠평력의 유형

포력을 한 가지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수많은 학자 역시 포력에 대한 기준을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애써 찾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한 이유는 포력의 문제가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니며 수많은 요인이 뒤틀려 있기에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김동규, 2019). 체육적인 틀 안에서 스포츠 포력의 유형은 크게 신체적 포력과 정신적 포력, 방관자 입장의 포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신적 포력은 다시 언어적 행위와 관계적 행위, 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행위로 구분된다(대한체육회, 2019).

1) 신체적 포력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신체적 트라우마 또는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가하거나 선수의 존엄성 및 자존감을 약화할 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외에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꼭 움켜잡는 것도 직접적인 신체적인 포력에 해당한다(대한체육회, 2019). 간접적인 신체적 포력은 공격적, 물리적인 포행을 가하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홍혜빈, 2023).

2) 정신적 포력

사람 몸에 상처가 나가지지는 않지만 이에 못지않은 좌절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감정적, 심리적인 학대를 하는 것으로 언어적 행위, 관계적 행위, 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행위가 있다. 언어적 행위는 말 또는 욕설 등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언어적 포력은 신체적 외모, 능력, 배경, 성격 등 상대방의 자아를 공격해 인격적인 모욕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며 상대방에게 공격적, 포력적, 공포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포함한다(김유정, 2016).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포력이 있다는 반면에 직접적인 행동의 모습이 아닌 언어적인 측면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주는 포력이 있다. 이를 언어적 포력이라고 한다. 언어적 포력이란 신체에 직접적인 힘의 행동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감정이나 심리적인 부분을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반

응을 불러일으키는 언어나 상징 사용에 중점을 둔 것으로 심한 욕설과 헐박, 위협, 조롱 등을 말한다(유광욱, 원유병, 2007).

관계적 행위는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이나 겁을 주거나 따돌리는 것이며, 비웃기, 무시하기, 따돌리기 등이 있다. 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행위는 개인의 할 일이나 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며, 심부름시키기, 흡연 혹은 음주 강요하기, 자유 시간 통제하기 등이 있다(대한체육회, 2019).

3) 방관자 입장의 폭력

방관자는 ‘옆에서 보고만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로 범죄 현장 상황에서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거나 잘못된 길을 향하고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해 보임에도 관여하려 하지 않고 지켜만 보는 사람을 뜻한다. 방임은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 상황에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지윤, 2018).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집단 구성원들이 폭력 행동을 무시하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이며 또는 폭력을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타인이나 동료의 폭력을 보고도 모른척하기, 동료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기, 묵인하기, 눈감아 주기 등이 있다(대한체육회, 2019).

6. 스포츠폭력의 사례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폭력은 과거에는 신체적인 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었다. 선수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업신여기고 있으며 폭력에는 무방비하게 노출되었다(최병문, 2009). 현재 스포츠계는 은폐된 사건을 뉴스, 신문, 인터넷 언론을 통해 신속하게 국민에게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축구심판이 관련된 스포츠폭력의 사례의 사건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건을 은폐하고 축구관계자들이 숨기기 때문이다(홍덕기, 2021).

1) 무책임한 축구심판 발생

축구심판 경기 규칙에 명시된 간단명료하게 3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져 각자의 맡은 바 책임과 임무가 있다. 축구심판의 주심의 임무와 부심의 임무 그리고 대기심

의 임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과 임무를 회피한 심판이 발생하게 된다.

2) 축구심판 평가관, 위원, 심판 이사의 과도한 개입 발생

축구 경기 외적으로 높으신 축구심판위원진들과 심판평가관, 심판을 경기장에 배정하는 지역 심판 이사의 과도한 권력남용과 개입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3) 경기 관계자, 학부모, 축구지도자 개입에 의한 폭력 발생

경기 전, 중, 후에 축구심판의 판정에 불만이 쌓이거나 시비 등으로 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7. 스포츠평력 예방 행동 지침

스포츠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포츠평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개인이 스포츠 윤리 의식을 지녀야 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팀원의 단합을 명분으로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대한체육회, 2023). 그리고 개인의 소지품과 개인 장비는 스스로 관리하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서는 안 된다. 팀 내 친목 도모, 장난, 환영식이라는 명분에 공포와 위협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김혁, 2016). 그뿐만 아니라, 특정 사람의 말투와 외모를 놀림의 대상으로 삼거나, 이전 경기 판정의 실수를 들추는 행위 등 인격을 모독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대한체육회, 2023).

8. 스포츠평력 예방을 위한 교육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예방하는 일에 앞서, 가장 올바른 방법인 스포츠 윤리를 갖는 것이야말로 스포츠평력을 예방하고 발생 즉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다(김혜림, 2021). 또한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과 단체와 사회의 노력과 국가의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하다(최문병, 2009). 스포츠 폭력에 대해 주체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기 위한 최우선 조치

로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교육을 최우선 과업으로 삼고, 스포츠인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임의대로 자체 처리하거나 은폐 및 축소해서는 안 되고, 올바른 절차 속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한체육회, 2023).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스포츠평크문화와 축구심판활동에 대한 실상을 규명하여 축구심판활동의 긍정적인 장점을 극대화하고 축구심판 선배와 후배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미래의 대한민국 축구심판 계를 이끌어 나갈 축구심판을 활성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참여관찰법을 적용하여 경험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사용하는 심층 면담법을 시행할 것이며, 반 구조화된 면접법의 내용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을 밝혀내기 위해서 귀납적 방법을 도출하여 적용할 것이다. 또한 심판들의 생각보다 더 구체화하기 위해 반 구조화된 면접을 사용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에서 심층 면담은 매우 중요한 자료수집의 도구가 되이며, 이에 따른 연구자,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 관찰 기간, 조사 연구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1) 연구자

연구자는 본 연구의 참여하고 관찰하는 자로서 대한축구협회 1급 축구심판이며 현역 축구심판으로 11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 활동하며 현재는 대학 U리그 축구 부심으로 활동 중이며, 전국 축구대회 초등, 중등, 고등 최우수 심판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다. 관찰자는 현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 전공을 배우는 중이다. 또한 축구심판에 열정과 관심이 많아 좋은 축구심판 문화를 외부에 알리고 있으며, 축구 행정에 관심이 있어 축구 관련 뉴스와 기사를 찾아보는 편이다. 이로써 연구자는 축구심판활동에 열정과 관심이 많은 관찰자의 관점으로 직접적인 참여관찰을 하였다. 논문을 쓴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며 논문을 쓰게 된 계기는 축구심판문화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구체적인 연구 대상 선정 방법은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질적 사례연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 또는 문제를 시

간의 공간과 흐름이라는 구조 안에서 깊이 있게 탐구하여 현상의 맥락과 원인을 연구 진행 시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활용 방안으로 비확률표집 중 하나인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목적 표집법은 연구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강상조 2006). 연구 참여자의 경우 대한축구협회 축구심판으로 만 20세 이상부터 만 50세까지 5년 이상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경력이 있는 축구심판이므로 연구 대상자를 표집으로 조사하는 데 무리 없다고 판단하였고, 편견에서 오는 오류를 통제할 수 없고 충분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였다. 그로 인해 신뢰성 또는 진실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강효민, 1998).

3)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

연구 대상의 표본은 대한축구협회 소속 중에 전남지역에 등록된 현역으로 5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남성 축구심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조사 방법으로는 대한축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전남, 광주 권역의 축구 주말 축구 리그와 전남지역 동호인 K5, K6, K7 축구 리그, 전국 중등 축구대회 참가하는 전남 심판들을 직접 관찰하며 기록하고 경기에 투입되기 전 모습과 경기 진행 중 모습, 경기 종료 후 마무리하고 나오는 축구심판을 관찰하며 면담 방식으로 작성을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참여한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 표 2 >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연번	이름	연령	성별	급수	활동 경력
1	A	만 30세	남	1급	13년
2	B	만 23세	남	3급	6년
3	C	만 32세	남	1급	12년
4	D	만 22세	남	3급	5년
5	E	만 46세	남	2급	11년
6	F	만 25세	남	1급	9년
7	G	만 48세	남	1급	25년
8	H	만 26세	남	3급	10년
9	I	만 49세	남	2급	6년
10	J	만 28세	남	3급	5년
11	K	만 25세	남	2급	9년

2. 관찰 기간

전남, 광주 권역의 주말리그 시작 2023년 3월18일부터 2023년 9월30일까지, 전남 권역 동호인 K5, K6, K7 축구 리그 시작 2023년 4월16일부터 2023년 9월10일까지 경기 일정이 있는 토요일, 일요일에 경기 시간 전, 중, 후와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5시간씩 이루어졌다. 전국 중등 축구대회 시작 2023년 8월9일부터 2023년 8월 15일까지 대회 집결 전 이동하는 시간과 경기장 출발하기 전부터 끝나치고 숙소 생활까지 7시간씩 이루어졌으며, 경기 시간 전, 중, 후와 휴식 시간을 참여관찰 시간에 포함하여 축구심판들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와 행동의 모습을 관찰하였다.

3. 조사 연구

1) 심층 면담 자료수집

(1) 참여관찰법(Participant Observation)

본 연구는 축구심판의 일상생활에 대해 자유롭게 파악하기 위하여 참여관찰을 사용하고자 한다. 참여관찰법(Participant Observation)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고 관찰하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은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김아영, 2000).

참여관찰법은 한가지의 현상을 내부로부터 이해하려는 접근방식으로서, 어떠한 집단 속의 문화현상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경험이나 행동과 의미에 관한 관심을 가지는 공간의 내면을 간단하고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방식은 행동 관찰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며 관찰자가 스스로 경험하며 느끼며 얘기하는 등 여러 현장 속에서 오감을 통해 관찰하며 분석하는 것이다(김성호, 2007).

이처럼 참여관찰에서 관찰자는 현장에서 관찰의 대상인 현장에 참여한다. 참여의 정도는 관찰하는 상황에 완전하게 몰입하여 그 상황의 일원이 되어 행동하면서 관찰하는 경우로부터 방관자의 역할만을 취하면서 관찰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참여관찰을 오랜 기간 속에 하루의 일상생활에서 연구 문제에 대한 자료와 답을 얻기 위한 자료수집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료수집을 병행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축구심판들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 환경 속에 축구심판문화들을 관찰할 수 있고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상호작용들을 관찰할 수 있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참여관찰이 축구심판들에게 좋은 점은 필요에 따라 아무 상황에서나 관찰대상자들이 관찰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성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자유롭게 기록하며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배민욱, 2012). 또한 참여관찰의 결과는 비참여관찰에서와같이 관찰자가 방관자로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곳에서 제한점이 사건 발생 현장의 내부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그러므로 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진실한 내면을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경우에는 참여관찰은 연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에 참여하여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는 것이며 긴 기간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구자가 배우고 관찰하는 것을 기록하는 일이다(조영달, 2013). 이때 참여관찰은 참여를 통해 일상을 밝혀가는 연구자의 학습 과정이자, 자료수집의 전략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구심판문화의 일상생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참여관찰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2) 심층 면담법(Deep Interviewing)

본 연구는 축구심판의 활동에 대해 자세하고 깊게 파악하기 위하여 축구심판들을 심층적인 면담을 사용하고자 한다. 심층 면담을 통하여 통계적 대상이 아닌 연구의 본질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심층 면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인 면담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조재성, 2019). 심층 면담은 연구자가 응답자의 관점과 경험을 깊이 파악하고 연구 주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 방법은 주관적인 정보를 얻는 데 적합하며, 응답자의 생각과 감정을 자세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상대방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에 관한 심층적인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자료 수집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영국, 2017).

축구심판들의 일상적인 대화가 축구심판문화에 대한 그들의 해석과 지각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고 효과적이며 기본적인 인간관계 속의 상호작용 방식이라는 점을 인정했을 때, 대화가 전제되는 면담은 면담에 참여하는 심판들의 관점과 생활 방식, 감정, 주관성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연구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과 행동을 기록하는 수동적인 방법으로서 심판들을 관찰하는 방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면담에 참여하는 심판들을 소통하며 대화를 이끌어나가며 그들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부분에서 심판들을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이용숙·김영천, 1998). 본 연구에서는 축구심판들이 활동 과정과 심판문화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과 방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심층면담 방법(in-depth interview)을 이용하였다.

(3) 반 구조화된 면접법(Semi-Structured Interview)

본 연구는 축구심판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끌어내기 위해 반 구조화된 면접을 사용하고자 한다. 반 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한 면담 가이드에 의하여 면담을 진행하되 면담자가 범할 수 있는 면담 상의 융통성과 유연성을 배제한 면담형식이다(오현강, 2017). 면담자가 사전에 준비한 일련의 조직화하고 구조화된 질문을 하며, 조금 더 풍성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서 더욱더 깊게 피면담자의 반응을 끌어내는 면담이라고 할 수 있다. 반 구조화된 면담은 이러한 면에서 상당한 융통성을 가지며, 면담자는 사전에 구성한 질문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면담 대상자에게 면담할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질문을 한다. 반 구조화된 면담의 질문 방식은 개방적인 형태로 진술되어 있어서 연구 대상자의 의견, 입장, 느낌을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질문의 속도나 순서, 질문의 범위와 폭을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다(김영천, 2012).

예비조사를 통하여 얻은 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하여 반 구조화된 심층면접을 실시할 것인데 연구자가 사전에 구성한 질문을 하고 축구심판들이 질문에 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축구심판들은 한팀이 4명으로 구성된다. 팀워크가 맞지 않으면 원활하게 경기 진행을 하기 힘들다. 그렇기에 경기 시작 전 30분간 준비운동 시간에 장난과 대화, 소통을 통해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신뢰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며, 경기가 종료되고 심판실에서 경기중에 있었던 일을 서로의 판정 결과에 대하여 소통하여 끈끈한 관계 속에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동기부여의 시간이 된다(신동열, 2006). 이처럼 자연스러운 관계가 이어져서 편안하게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2) 조사 도구

(1) 조사내용

축구심판문화에서 스포츠평력이 축구심판 활동의 실상을 분석하여 축구심판양성에 활성화하고자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11명에게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심층 면담 방식을 진행하였다. 반 구조화된 면담법 형식의 질문 내용은 스포츠평력의 인식을 강조하며 스포츠평력이 일어나는 원인과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선정하였다. 면담 질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 표 3 > 면담 질문 내용

구분	인터뷰 질문 내용
질문 1	축구심판활동은 만족하는가?
질문 2	축구심판활동을 하면서 스포츠평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질문 3	축구심판활동 중 장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 4	축구심판활동 중 단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 5	축구심판활동의 개선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심층 면담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평력문화와 축구심판활동에 대한 실상을 탐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추출하기 위해 심층 면담을 사용하였다. 먼저, 스포츠평력에 관한 연구와 축구심판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해결방안과 더 나아가 축구심판의 문화를 올바르게 활성화해 나아갈 것인지 구상하였다.

(3) 연구의 진실성

은퇴한 축구심판과 함께 일차적인 회의를 통해서 심층 면담 질문을 구성한 후 5

년 이상 활동한 남성 축구심판 총 11명을 순차적으로 면담을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11명의 축구심판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축구심판을 은퇴한 원로 심판과 지도교수와 함께 회의를 통해 연구 결과의 정확성,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할 것이다. 면담의 내용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수기로 작성하여 기록을 하고 이차적인 회의를 통해 면담 질문 내용에 연구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었는지,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를 분석해 축구심판을 은퇴한 원로 심판과 지도교수의 회의를 통해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질적 연구의 하위 검증단계에서 사용되는 한 가지인 삼각 검증법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높일 것이며, 이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전남축구협회 남성 심판들로 총 11명, 활동 경력 5년 이상 대상으로 하여 전남, 광주 권역의 주말리그와 전남권역 동호인 K5, K6, K7 리그, 전국 중등 축구대회가 진행되는 기간을 전과 후로 하여 집중적인 관찰이 이루어졌으며 축구경기장 안과 밖의 모습을 관찰하고 전남, 광주 권역의 주말리그 시작 2023년 3월18일부터 2023년 9월30일까지, K5, K6, K7 축구 리그 시작 2023년 4월16일부터 2023년 9월10일까지, 전국 중등 축구대회 시작 2023년 8월9일부터 2023년 8월15일까지 경기장에 배정을 받은 장소에서 이동 전에 심판들과 차 안에서 대화하며 관찰하고, 경기장에 도착 후에 심판 임무 투입 전과 후를 집중적으로 행동을 관찰하며 심판 임무를 마치고 심판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였으며, 전국대회 당시에는 심판 일정을 끝마치고 숙소로 들어오는 동료심판을 관찰하였고, 경기장에 있는 심판평가관, 축구관계자의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직접 참여관찰을 하여 일상의 내용을 연구자의 축구심판 일상을 기록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실제 참여관찰 기간 이외에는 비참여관찰도 병행하였다. 경기장에 투입되기 전에 심판들이 신속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임무 수행의 역할을 하였는지 직접으로 관찰하고 병행하면서 심판들이 생각하는 동료심판, 심판평가관, 축구관계자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행동, 태도를 관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참여관찰 기록은 아래와 같다.

1. 축구심판 관찰

1)주말리그 참여하는 축구심판활동에 대한 관찰 기록

경기 진행 중 심판 판정에 불만은 가진 지도자가 대기심에게 말과 행동으로 항의한다. 다행하게도 큰 문제 없이 무승부로 80분의 치열한 경기가 종료되고 양 팀 지도자들이 심판들에게 고생했다고 따뜻한 말을 건넨다. 심판대기실에 들어와 휴식하는 중 선배심판이 후배 심판에게 조금 전 경기에 대해 피드백을 해줄 때 치욕스러운 언행으로 경기 도중에 내린 판정 실수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후배심판은 그런 판정을 내린 이유를 반박했으며 선배심판은 후배심판이 그러한 태도와 못마땅한 표정을 보고 언성을 더 높인다. (2023-03-19 일요일 주말리그 중에서)

경기가 시작되고 양 팀 선수들이 경기 도중 과열이 발생하게 되어 B팀 감독으로부터 판정 항의가 들어온다. B팀 감독으로서 자신의 선수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항의 수준으로 보였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경기감독관하고 불미스러운 언쟁으로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다. 다시 경기가 재개되었고 그렇게 전반전이 무승부로 끝났고 하프 타일 때 갑자기 또 B팀 감독과 경기감독관이 이번에는 감정싸움을 시작한다. 후반전은 B팀 승리로 조용하게 흘러갔다. 2구장 두 번째 C팀과 D팀의 경기였다. 후반전 끝나기 2분 남기고 D팀의 지도자 2명이 주심에게 판정 항의로 폭언과 욕설을 하여 감독은 퇴장을 명 받았고, 수석코치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렇게 시끄러웠던 경기가 종료되고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양 팀 선수들이 언쟁으로 주심에게 경고 조치 받았다. (2023-03-26 일요일 주말리그 중에서)

운동장에 도착해서 후배심판들은 축구공 공기압 확인을 하며, 선배심판 커피 심부름을 한다. 금일 심판 배정표 공개가 되고 각자의 운동장을 점검하러 이동한다. 역시나 나이가 많으신 1급 선배심판들은 당연하듯이 이동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운동장 점검이 끝나면 각 구장으로 공기압 점검을 마친 축구공 가방을 운반하며, 경기에 쓰일 부심 깃발을 가져다 놓으며 후배심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2023-06-17 토요일 주말리그 중에서)

2) K5, K6, K7 리그 참여하는 축구심판활동에 대한 관찰 기록

K5 전국 왕중왕전 축구대회에 진출권을 가리는 경기이다. 그만큼 금일 단판 경기가 양 팀 축구관계자와 선수들이 예민하고 매우 신중하며 중요한 경기이다. 경기는 시작되었으며 경기 종료 막바지 72분경 A팀 선수가 파울을 유도하는 모습이 있었다. 주심은 그 장면을 파울로 채택하지 않았고 A팀의 벤치의 지도자는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경기 시간이 종료되어 무승부를 거둔 양 팀은 득실 차이로 B팀이 최종 순위 경쟁 전의 승자가 되었다. 종료 호루라기와 동시에 패배한 A팀의 K 선수가 주심에게 달려와 ‘72분경에 파울을 왜 채택하지 않았느냐고’ 격한 언어로 판정 항의를 하자 A팀의 동료들과 A팀의 지도자가 경기장에 들어와서 K 선수를 만류했다. (2023-09-10 일요일 K5 리그 중에서)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연배가 있으신 생활체육 출신 5급 심판이 어떻게서든 한 경기라도 들어가지 않기 위해 신입 5급 심판에게 좋은 경험 한번 쌓으라고 억지로 경기에 투입 시킨다. 어떻게 보면 같은 5급 심판인데 먼저 심판 활동을 하고 경력이 있다고 해서 신입 심판의 기강을 잡는 모습이다. 경기장에 투입될 준비가

되지 않은 신입 심판은 어찌할 줄 모르며 발을 동동 구른다. 경기 투입된 신입 심판은 경기 시작부터 양 팀 선수들에게 휘둘린다. 자신이 내린 판정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표정이다. 전반전은 종료되었고, 후반전을 시작하였다. 후반 종료 끝나기 10분 전에 B팀 선수가 전반전부터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렇게 쌓인 감정과 판정에 대한 불만을 심판을 대상으로 화풀이를 하였다. 결국 모욕적인 욕설을 한 B팀 선수는 퇴장 명령을 받았다. 경기가 종료되며 선수들은 인사를 하며 지나갔다. (2023-07-16 일요일 K6 리그 중에서)

야간 경기를 시행했다. 선배심판이 경기 집결 1시간 전에 도착하지 않았다. 다행히 인원수는 맞아서 4명의 심판진이 첫 번째 경기에 투입될 준비를 할 차나에 늦게 온 선배심판이 도착했다. 선배심판은 후배 심판에게 오자마자 투덜거린다.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멀다며 배정이 불만족스럽다고 호소한다. 경기에 투입되는 시간인데 늦게 온 선배심판이 배고프다며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킨다. 후배심판은 정신없이 바쁜 상황 속에서 말없이 묵묵히 선배의 심부름을 한다. (2023-07-22 토요일 K7 리그 중에서)

3) 중등대회 참여하는 축구심판활동에 대한 관찰 기록

전국대회는 항상 심판 행동 지침과 경기 운영에 대해 사전교육을 해서 경기 전날 밤에 교육을 듣고 숙박을 해야 한다. 전남에서 울진까지 가는데 다행히 지역은 동료심판이 있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다. 후배심판의 표정은 어두웠다. 이동 중에 후배심판이 생활에 힘든 부분과 어렵고 불편한 부분을 이야기한다. 지역 선배심판들과 대항 심판 이사가 자신의 심판 판정 실력에 대하여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서러움을 하소연했다. 심판 이사가 심판 관계 외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과 식사 자리 만들라며 불편함을 준다고 했다. (2023-08-09 전국대회 중에서)

전국대회 경기가 시작되는 첫날 야간 경기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심판평가관이 전화로 연락이 와서 자신의 방으로 찾아오라고 했다. H 심판은 금일 경기에서 실수한 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많았다. 평가관 방에 찾아가 평가관이 경기장에서 있는 일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금일 자신이 입었던 옷, 속옷, 양말을 세탁하라고 지시했다. H 심판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묵묵히 빨래하러 간다. (2023-08-11 전국대회 중에서)

경기 중반 주심이 반칙 판정을 내렸는데 관중석에 있는 한 학부모가 주심을 향하

여 욕설했다. 욕설을 들은 주심의 표정이 좋지 못했다. A팀의 벤치에서 골키퍼 코치가 심판을 조롱하는 언어를 썼다. 대기심은 조롱과 비판하는 언어 듣자마자 경기가 중단된 후에 주심을 불러 A팀 골키퍼 코치가 언행과 행동을 전달했다. 전달 사항을 들은 주심은 A팀 골키퍼 코치를 즉각 경기장에서 퇴장 조치를 명했다. (2023-08-15 전국대회 중에서)

2. 축구심판 면담

1) 축구심판활동 만족성

본인 스스로 선택하여 축구심판 자격증을 취득해서 대한축구협회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축구심판활동의 만족성은 매우 높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11명 심판 중 8명은 만족성을 느끼고 있다고 면담에 응했고, 3명은 만족은 하지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축구심판활동 만족성의 면담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 표 4 > 축구심판활동 만족성의 면담 내용

A 심판	“축구심판 활동은 나 자신에게 취미생활을 넘어 제2의 직업으로서의 꿈을 갖게 해주고 있다. 심판 활동을 통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체력관리 및 각종 직무능력, 자기 계발 등을 위한 노력을 통해 취미 그 이상의 새로운 꿈을 위한 도전의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다.”
B 심판	“현재까지 시간적 여유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없어서 심판 활동하는 일에 있어 제한사항이 없기에 만족하며 심판 활동을 하고 있다.”
C 심판	“내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워하는 축구 경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축구선수들과 함께 경기장 안에서 뛰어다니는 것이 즐겁다.”
D 심판	“매우 만족하고 있다. 대부분 주말에 경기가 있으므로 평일에는 나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주말에는 축구심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평일에 학업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어서 축구심판 활동이 주말마다 기다려진다.”

E 심판	“대체로 축구심판 활동이 만족스럽다. 주말에 땀을 흘리며 운동도 하면서 용돈벌이를 할 수 있어서 만족성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축구심판 집단이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F 심판	“심판 활동에 만족스럽게 느낀다. 개인적으로 축구선수들에게 존중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성취감을 크게 느낀다.
G 심판	“만족한다. 나 자신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축구심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누군가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축구장에 오면 인정받을 수 있어서 좋다.”
H 심판	“축구선수로 활동하다가 부상으로 그만두게 되었고 축구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축구심판을 시작하게 되었다. 축구심판활동 통해 새로운 느낌으로 운동장에서 또 다른 생동감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좋다.
I 심판	“만족도를 100%로 볼 때 70% 정도라고 생각한다.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군대식 문화가 축구심판 문화 안에 자리 잡고 있어 강압적인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J 심판	“물론 많은 사람과 다 같이 어울리고 흥미, 재미, 매력이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축구심판 활동 속에 심판 선후배 관계 사이의 군대식 문화가 있어서 축구심판 활동하는데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었다.”
K 심판	“주말에 운동하면서 많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축구심판 동료들을 만나보게 되어 즐겁게 축구심판 활동을 하고 있다.”

2) 축구심판활동 중 스포츠평력 경험

11명의 심판이 활동 중에 9명이 스포츠평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스포츠평력에 관한 직접적으로 경험한 심판은 6명이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심판은 3명으로 나타났다. 축구심판활동 중에 스포츠평력을 경험한 사례의 면담 내용은 아래 <표 5>와 같다.

< 표 5 > 축구심판활동 중 스포츠평력을 경험한 사례의 면담 내용

A 심판	“축구심판의 활동을 통하여 경기장에서 선수와 지도자, 선수와 선수의 스포츠평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고, 축구경기장 내에서 축구 경기가 진행 중에 일어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축구지도자의 언어적 폭력을 많이 보았다.”
B 심판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차례 스포츠 폭력을 목격한 간접 경험은 있다. 대부분 축구심판의 판정 실수로부터 원인이 비롯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축구지도자, 팀 관계자의 잘못된 행동들이 동반되기도 한다. 엄연한 교육자로 분류되는 자들이 자신의 감정마저 주체하지 못하고 언어적, 신체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며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려 했다. 이 부분은 축구심판과 축구지도자, 팀 관계자 외의 축구를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C 심판	“2021년도 축구 경기 진행 중 퇴장 판정을 받은 축구선수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주심이었던 나를 손으로 거칠게 밀치는 상황을 겪었다. 심판 생활하면서 처음 겪는 상황이라 매우 당황스러웠으며 불쾌했다.”
D 심판	“선배에게 스포츠평력은 당한 적도 없었고, 후배에게 스포츠평력을 가한 적도 없었다.”
E 심판	“축구심판이 동료 심판을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고, 언어적인 폭력을 겪은 경험은 있다. 축구경기장 밖에서는 학부모, 선수, 지도자가 심판 판정을 불만을 가져서 경기가 끝나고 퇴근하는 심판을 기다렸다가 보는 앞에 모욕적인 언어와 욕설했다.”
F 심판	“직접적으로 경험이 있다. 축구 경기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심판 선배의 무차별한 욕설 및 폭언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적이 있다.”
G 심판	“10년 전만 해도 과거에는 운동장에서 신체적 폭력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현재는 신체적 폭력보다는 언어적 폭력이 흔하게 볼 수 있다.”
H 심판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했다. 동호인 생활체육 축구 경기 진행 중 심판의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동호인 선수로부터 멱살을 잡힌 경험이 있었다.”
I 심판	“신체적으로 폭력을 경험은 없으나 언어적으로 폭력은 당하는 것은 물론 축구 경기가 끝난 이후에 심판 선배로부터 피드백을 해주는 상황에서 불쾌한 모욕적인 언어를 들어서 심판 활동을 그만두어야 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J 심판	“연세가 있는 심판 선배들이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젊은 층의 심판 후배들에게 생활체육 축구 경기를 조금 뛰어 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 당일 5번 연속으로 쉬지도 못하고 축구심판으로 임무 수행했던 경험이 있었고, 심판으로서 축구 경기를 준비해야 상황 속에서 심판 선배로부터 커피를 타오라고 시켰던 심부름을 한 경험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사용 중인 물품을 보게 되면 잠시 빌려 달라고 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사용하게 되게 한 경험이 있었다.”
K 심판	“신체적인 폭력은 없었다. 하지만 언어적으로 폭력을 겪었다. 심판 선배가 후배에게 축구 경기가 끝난 이후 판정에 대해 ‘왜 내가 도움을 주었는데 너는 나의 도움을 받지 않냐며 싹수없는 녀석이라며’ 모욕적인 욕설을 했었다.”

3) 축구심판활동 장점

11명의 모두 심판이 축구심판활동에 대한 각자 생각하는 장점을 답했다. 축구심판 활동 장점의 면담 내용은 아래 <표 6>과 같다.

< 표 6 > 축구심판활동 장점의 면담 내용

A 심판	“전국대회 당시에 지역의 축구심판이 아닌 대한축구협회 심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역의 심판들과 함께 경기장에서 활동하며 더욱 끈끈해지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많은 것 같다.”
B 심판	“다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축구심판으로써 전문가의 입장으로 축구 경기 규칙을 축구선수보다 더욱더 자세히 알아야 하고, 선수들과 함께 뛰어다녀야 하기에 꾸준한 체력관리로부터 운동을 일정하게 계속해서 나를 부지런하게 만들어 준다.”
C 심판	“선수들의 플레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축구선수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느낌이 정말 즐거운 일이다. 축구 리그, 대회가 펼쳐지는 생소한 도시들을 방문하고 그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D 심판	“신입 축구심판으로 입문했을 때 먼저 입문한 선배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비 중 여분이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며, 지역 심판 협의회

	에서 얼굴 보는 시간을 자주 만들어 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차 친해지질 수 있어서 고마운 감정을 느낀다.
E 심판	“축구 경기에서 경기 규칙을 적용하는 주심으로써 경기를 운영하는 견해로서 동료 부심들과 협력과 소통하면서 경기를 할 수 있고, 축구 심판으로써 동료애가 나타나는 장점이 있다.”
F 심판	“대한축구협회 축구심판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활동함으로써 성격이 변화하였다. 소심한 성격에서 활발한 성격으로 긍정적인 생각의 변화와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다.”
G 심판	“현재 3교대 직장을 다니고 있다. 축구심판 활동으로 인해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일상생활을 이어가는데 바이오리듬 향상으로 직장에서의 업무능력이 향상된다.”
H 심판	“축구심판이라서 축구심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애경사도 챙겨주며 심판 활동 이외에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도와주는 게 좋은 것 같다.”
I 심판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아울러 교류할 수 있어서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되었다.”
J 심판	“권역 리그와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그리고 하계와 동계시즌마다 열리는 전국대회를 다니며 다른 지역 시·도에서 오는 여러 심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의사소통을 하며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K 심판	“서로가 같은 공통된 축구심판이라는 관심사에 대해 함께 운동하고, 공부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정진하는 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4) 축구심판활동 단점

11명의 모두 심판이 축구심판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 심판문화, 심판행정의 단점을 답했다. 축구심판활동 단점의 면담 내용은 아래 <표 7>과 같다.

< 표 7 > 축구심판활동 단점의 면담 내용

A 심판	“우리나라 축구심판 시스템상의 고질적인 병폐라 할 수 있는 공정하 심판배정의 문제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축구심판으로서 축구 경기에 배정을 받아 활동하다 보니 유리하거나 불평등한 배정을 받게
------	--------------------------------------------------------------------------------------------------------------

	<p>나, 어느 특정 심판은 축구 경기 배정을 많이 받고의 차이 등 공정하지 못한 배정으로 인하여 심판들 사이의 불화와 비활동 심판의 증가로 부정적인 문화가 생겨나는 것 같다.”</p>
B 심판	<p>“축구심판 활동의 노력과 허비된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내가 얻어가는 것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만족하지 않는다. 내가 이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명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으로서의 경제적인 안정성이 없다.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내 모든 열성을 쏟아부어 가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충분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p>
C 심판	<p>“초등, 중등, 고등, 대학 리그까지 순수 아마추어 리그부터 프로축구 K리그까지 도달하는데 각자의 경험과 경력에 따라 활동하는 무대의 폭이 차이가 크다. 마냥 즐거움만 느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내가 경기 도중에 판정을 내릴 때마다 책임감과 부담이 따른다. 또한 K리그 축구심판이 아니라면 직업으로 선택하기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그 레벨에 도달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p>
D 심판	<p>“선배심판들이 먼저 친근하게 조언과 피드백을 해주는 경우가 더 많지만 가끔 성질내며 화를 내는 선배심판이 있어서 궁금했던 부분을 다가가서 물어보기가 쉽지 않다.”</p>
E 심판	<p>“아직도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축구심판 활동 문화에 남아있고 축구심판으로서 심판으로서 소신 있게 결정해서 판정하는 관점이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동료심판의 판정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가 아쉽다.”</p>
F 심판	<p>“모든 심판이 좋은 경기 관장하는데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심판들이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서로를 존중해주며 격려와 응원해주면 좋겠다.</p>
G 심판	<p>“축구심판 조직체계가 매우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기에 심판평가관, 축구관계자 사이에 축구심판이 겹쳐있어서 감과 을 관계가 이어져서 축구심판 활동이 어렵다.”</p>
H 심판	<p>“축구심판 문화는 정치적인 스포츠 문제처럼 학연, 혈연, 지연 문제점이 심하다.”</p>
I 심판	<p>“축구심판의 급수를 떠나 우리는 같은 동료심판이다. 서로를 비판하는 심판문화가 좋지 않다. 그리고 지역 심판 이사의 개인적인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심판 활동하는데 힘들 때가 있었다.”</p>

J 심판	“축구심판 급수에 따라 질서를 나누는 사람이 있고, 또한 전관예우로 선배 심판들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이 존재해서 축구심판 활동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K 심판	“공통된 목표가 있기에 같은 동료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같이 목표에 도달하자는 동료심판이 있는 반면에 서로를 흉내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단점이라고 생각한다.”

5) 축구심판활동 개선방안

11명의 심판이 현재 처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심판 활동이 발전하기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아래 <표 8>과 같다.

< 표 8 > 축구심판활동 개선방안의 면담 내용

A 심판	“매년 젊은 층 축구심판들이 가정을 꾸리고 취업을 하면서 축구심판이라는 일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은퇴를 선택하게 된다. 10대, 20대 젊은 층 축구심판들이 심판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다. 아마추어 심판 생활을 하면 금전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경각심을 가지며 젊은 심판들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심판비 인상과 전국대회 진행 시 숙박이나 인상과 복지 시설을 보완해주었으면 한다.”
B 심판	“축구심판문화 수직적인 문화에서 수평적인 문화로 바뀌어나가야 한다.”
C 심판	“과거와 비교하면 환경이나 시스템 모두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 더 많이 변화해야 한다고 매번 생각한다. 21세기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축구에 축구심판들도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월드컵 심판 배출을 위해서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심판 선배들은 가능성을 지닌 후배들을 끌어줘야 하고 심판 후배들은 선배심판들의 좋은 장점들을 빠르게 흡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잘 융화될 수 있도록 공정한 배정이나 심판 교육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D 심판	“선배와 후배, 축구관계자들이 권위적이며 수직적이지 않은 평행한 심판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E 심판	“외부의 영향 없이 심판 판정 및 경기 규칙 운영의 독립적인 운영할

	수 있는 심판문화, 선배와 후배 문화가 강압적이고, 수직적이지 않은 평행적인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유로운 심판문화의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다.”
F 심판	“모든 심판이 생각하는 방식 환경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방식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동료심판을 존중하며 격려를 해준다면 보다 좋은 심판 선, 후배 관계와 심판문화에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다.”
G 심판	“축구심판 매년 3월에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해의 시즌 끝날 무렵 10월에 축구 경기 규칙 이론교육을 시행한다. 이러한 교육 보다는 먼저 스포츠 폭력 스트레스와 후유증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축구심판들에게 스포츠 인권교육과 심리상담 및 폭력 예방 교육이 미리 사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H 심판	“축구심판 활동에 나이, 급수, 지역을 상관없이 서로 양보하고 이해 하며 잘했을 때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심판들이 많아진다면 심판문화도 정말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변할 것 같다. 또한 최근에는 심판 선후배들 사이에 신체적인 폭력은 찾아보기 극히 힘들다. 그러나 언어적인 폭력이 많은 것 같다. 심판들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퇴출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
I 심판	“심판평가관, 선배심판, 후배심판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며, 학연, 지연, 혈연, 축구선수 출신이나 비선수 출신이 동등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축구심판 활동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선배 심판이 후배심판들에게 폭언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적극적인 개입과 처벌이 필요하기 전에 사전에 심판 인권 강화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주었으면 한다.”
J 심판	“후배심판 보호를 위한 인권 보호 교육 강화와 정신적인 상담할 수 있는 부서가 생겼으면 한다.”
K 심판	“심판문화에 존중은 당연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선배와 후배가 권위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경쟁의식보다는 같은 소속감을 느끼며, 서로를 배려하며 도와주고 챙겨주는 문화가 있다면 보다 좋은 심판 문화가 형성될 것 같다.”

V. 논의

본 연구는 축구심판들이 인식하는 스포츠평화문화와 축구심판활동에 실상에 관한 연구로서 축구심판활동 과정 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을 분석하고 참여관찰과 반 구조화된 면담을 구성하여 전남축구협회 축구심판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은 연구 논의를 도출하였다.

1. 축구심판활동 관점 차이

1) 주말리그 활동

전국 초중고 축구 리그가 2009년에 출범해서 어느덧 2023년 14년 시간이 흘렀다. 대한축구협회에 소속으로 가입을 한 774개 구단이 있다. 3월 초에 개막하여 7월 초까지 매주 주말에 리그를 치르며, 방학 기간은 전국대회를 위해 잠시 리그를 멈춘 뒤 9월부터 재개된다(대한축구협회, 2023).

전남 심판들은 매달 동호인 생활체육 축구, 엘리트 선수 축구 경기 수가 대체로 심판 인원수에 비례하여 많은 편이며, 경기를 관리하고 배정하는 전남축구협회 축구관계자와 심판 이사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이해된다. 하지만 축구관계자와 심판 이사의 노력이 부족과 심판을 보호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느낀다. 선행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조지음(2014)은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끊임없이 유능한 인재의 심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축구 현장에서는 심판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말리그 현장에서는 많은 경기를 소화하게 되면서 심판들은 현장에서 집중력과 체력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한 새로 유입된 심판들이 들어오면 신입 심판들 관심과 관리가 부실하여 비활동 심판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부족한 심판과 비활동 심판 증가의 큰 이유로 금전적 보수의 문제를 들 수 있다(김배성, 2019). 축구심판들은 배정되는 경기마다 일정한 인건비용을 받게 되는데, 자신이 언제 어떤 경기에 배정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배정과 이에 따른 금전적인 부분을 얻을 수 없기에 심판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유능한 심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해야 하지만 지금

의 심판 인건비용으로는 심판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조지음, 2014). 또한 조지음(2014)은 한국 축구심판에 대한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많은 위협이 있다. 많은 위협 중에 먼저 선수와 지도자들의 심판 판정에 대한 불신 문제를 들 수 있다. 축구심판도 인간이기에 아무리 유능한 심판이라 해도 잘못된 오심을 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수의 선수와 지도자들은 피할 수 없는 오심이 일어나는 것이 스포츠이고, 그 오심도 스포츠 일부로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선수와 지도자들은 자동 반사적인 불신으로 심판을 저평가하기도 한다. 선수와 지도자들의 불신은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 학부모에게도 전달되어 경기를 구성하는 구성원 모두가 심판을 불신하고 폭력과 폭언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어려운 상황을 준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2) 전남권역 동호인 K5, K6, K7 리그 활동

2016년 2월 22일 대한축구협회와 생활 축구연합회는 서로 통합하였다. 이로써 대한축구협회는 생활 축구와 엘리트 축구 모두를 전담하게 되었다. 국민 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는 대한축구협회 생활 축구 본부로 이름을 변경했다(대한체육회, 2023). 2017년 K7 시, 군, 구 리그 시작으로 2018년 K6 시, 군, 구 리그가 출범하였고, 2019 마지막으로 K5 시, 군, 구 리그가 형성되었다(대한축구협회, 2019). 선행연구에서 최진철(2014)은 자금 및 시설 부족으로 아마추어 축구팀들은 종종 자금 부족과 적절한 시설 부족으로 힘들게 진행한다. 특히 아마추어 축구에서는 선수들과 관련 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이처럼 우선 생활체육의 고질적인 부분으로 선수 관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중 선수등록과 현역 선수 출신 확인이 어렵다. 이중 선수등록은 한 선수가 하나 이상의 축구팀에 등록해서 경기를 참가하는 것이다. 축구 실력이 좋은 선수이면 여러 팀에게 제안을 받고 친목 활동을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다. 과거 생활체육은 눈 감아 주기식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대한축구협회와 통합되면서 동호인 축구 리그, 대회 규정이 강화되어 이중 선수등록을 금지하고 있다(대한축구협회, 2023). 축구심판과 리그담당 관계자들 역시 출전선수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을 준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전국 중등 축구대회 활동

전국 중등 축구대회는 중등 선수들이 참가하는 축구대회이다. 매번의 대회마다 좋은 축구선수를 배출하는 곳이며, 젊은 축구심판들에게도 좋은 경험과 기회이며

마찬가지로 유망하고 우수한 심판을 발굴하는 곳이다(대한축구협회, 2023). 전국 대회는 말 그대로 총성이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그만큼 심판들의 판정 하나하나에 승패가 달렸기에 지도자, 학부모들이 예민하다. 누구에게나 초보였던 시절은 지도자나 선수, 심판 모두 똑같은 시절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축구심판들도 경기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 중요성을 알고 있다(곽경만, 2006).

우리나라 생활방식과 문화 모습과 같이 심판문화도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적 성향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유광욱(2007)은 구조적인 폭력은 불평등한 수직적 관계, 상하관계라는 틀 안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주요 문제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2. 축구심판 면담 관점 차이

1) 축구심판활동 만족성

본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심판활동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만족성을 드러냈다. 선행 연구에서 장연환(2017)은 축구심판들이 축구심판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원활한 인간관계와 자기 계발이 직무적인 부분에서 만족성이 높다고 본 연구를 지지한다. 이처럼 심판 활동으로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 계발이 발전된다는 점, 주말에 일상을 잠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평상시에 꾸준한 체력관리를 하며 금전적으로 보상이 따른다는 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여 인간관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만족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김동규(2019)는 우리나라 스포츠에서 권력은 이처럼 군대문화와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수직적인 관계를 극명하게 나뉘고 있고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축구심판활동 과정 중에 심판 선후배 사이의 군대식 문화와 상하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김현수, 2016).

2) 축구심판활동 중 스포츠폭력 경험

본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심판활동 중에 스포츠폭력을 대부분이 경험했다고 드러냈다. 선행연구에서 조지음(2014)은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관중들의 심판 판정에 불신하고 있다. 축구심판도 인간이기에 아무리 유능한 심판이라 해도 잘못된

오심을 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많은 선수와 지도자들도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오심이 일어나는 것이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상황이고, 그 오심도 스포츠 일부로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선수와 지도자들은 무조건적인 불신으로 심판을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신은 폭력과 폭언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며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유진, 박해용, 1999).

간접적으로 경기장 안에서 A팀 지도자가 자신 팀 선수에게 경기 전술 지도 과정 중에 거친 언어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으며, 경기중 A팀 동료 선수들 사이에서 서로 비방하는 언어를 듣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점, 직접적으로 경기장 안에서 경기 중에 심판 판정에 불만을 가진 선수가 심판을 향해 거칠게 손으로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신체적인 폭력을 심판에게 했다는 점, 경기장 밖에서는 심판 판정에 불만을 가진 선수의 학부모와 지도자가 퇴근하는 심판을 기다렸다가 모욕적인 언어와 욕설하는 스포츠폭력 현상이 김혜림(2021)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심판 선후배 관계 사이에서는 축구 경기 심판 임무 수행 상황 중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답답함을 참지 못한 선배심판의 욕설과 폭언을 듣게 되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 또한 후배심판들에게 불평등한 부탁과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점, 후배심판의 물건 빌려달라고 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김현수(2016)는 권위주의적인 선후배 사이는 수직적인 구조를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포츠 폭력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포츠폭력을 경험으로 인해 그 이후 정서적인 고통과 스트레스의 결과가 나타나며 그 결과로 인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 전에 적절한 개입과 중재가 필요하다(김혜림, 2021).

3) 축구심판활동 장점

본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심판 문화의 인식과 심판활동의 다양한 긍정적인 장점을 찾을 수 있었다. 장연환(2017)은 축구심판들이 축구심판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원활한 인간관계와 사회성, 자기 계발이 직무적인 부분에서 만족성이 높다고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전국대회 때 전국적으로 심판들이 모여 함께 경기장에 배정되어 활동하며 더욱더 끈끈해지고 가까워지며 다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점이 있고, 축구심판으로써 전문가의 입장으로 축구 경기 규칙을 더욱더 자세히 알고 동료심판들과 서로 경기 규칙 자료를 공유하여 인지하지 못한 규칙을 숙지하게 된다는 점, 선수들과 함께 뛰어다녀야 하기에 꾸준한 체력관리로부터 운동을 꾸준하게 하여 신체로부터 건강함을 얻을 수 있는 점이 있고, 심판활동을 통하여 각 지역을 다니며 여행을 즐길 수 있으며 심판 선배를 통하여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세대

의 심판 선후배가 모여 어울려서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 있다(김상우, 2016). 축구심판활동을 해서 사회적 측면으로 대한축구협회 축구심판 집단 구성원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긍정적인 생각의 변화와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다는 긍정적인 점을 알 수 있다.

4) 축구심판활동 단점

본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심판활동에 대한 심판 행정, 심판문화의 다양한 단점을 찾을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서경화(2017)는 한국 스포츠 문화는 예로부터 스포츠폭력을 나날이 새롭게 보안 되며 규칙과 규정 그리고 제재를 통하여 근정시키고자 하지만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축구심판의 행정적인 측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판 집단이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며, 심판배정에 관한 지역과 개인의 불평등한 경기 배정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조지음(2014)은 잦은 심판위원장의 교체와 심판위원회의 개편은 하나의 장기적인 축구심판 발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교체되는 심판위원장마다 성향과 특성이 다르며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달라 새로운 심판위원장으로 교체되면서 계획이 진행되는 차질을 가져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특정 A 지역 출신의 심판위원장, 심판배정위원, 심판평가관 등이 다수인 지역 심판들에게 집중적으로 상위리그 경기와 수준 높은 경기를 배정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심판배정의 불평등한 원인이 발생하여 심판들 사이의 시기, 질투, 불화가 지역 심판들 사이의 갈등을 일어나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를 지지했다.

축구심판은 대한축구협회에 상시 채용되어 근무하는 형태가 아닌 일용직에 해당한다. 경기에 배정을 받을 시 참가할 수 있는 불안정한 근로조건을 감당해야 하며, 심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정적이고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김상우, 2016). 선행연구에서 김상우(2016)는 전체적으로 모든 연령대의 축구심판들이 경기 수당 만족에 대해서는 낮은 평균값을 보여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업적으로 생각하는 축구심판에게 금전적으로 심판활동에 대한 충분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문제점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였다.

5) 축구심판활동 개선방안

본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심판활동의 개선하는 방안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선행연구에서 조지음(2014)은 축구심판들이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개선방안과 축구심판들이 생각하는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과 의견을 듣기 위해 축구심판 부서의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독립적인 심판부서를 만들어서 수직적인 심판문화를 수평적인 심판문화로 바꿔나가야 하며, 축구심판들의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또한 불편 사항과 축구심판들의 인권과 고충 상담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조지음, 신재휴(2014)는 축구심판 활동 중 스포츠평력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후유증을 겪은 심판들을 위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스포츠 인권교육 강화와 스포츠평력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의무적인 교육으로 진행해야 하며, 심판상벌위원회에 스포츠평력 처벌법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개선점이 되어야 한다. 금전적인 부분, 상하 수직적인 관계 부분, 학연, 지연, 혈연에서 오는 불평등한 심판배정에서 중도에 하차하는 심판들이 있으며 변화하기 위해서 대한축구협회가 경각심을 가져 좋은 심판들을 유지하며 신입 심판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인 측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김동진, 2020).

김동규(2019)는 의사소통은 수직적인 관계를 해결하는 방안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선배와 후배 사이의 점차 줄어갈 수 있으며, 과거의 좋은 것을 유지하며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대책 방안도 필요하다. 선후배 심판 관계가 권위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 경쟁보다는 대한축구협회 심판 하나의 소속감으로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격려할 수 있는 심판문화가 형성되고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로 스포츠평력으로부터 축구심판활동 개선방안은 심판 인권에 대한 교육과 고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교육의 내용을 체계적이며 구체적이고 꾸준하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조지음, 2014).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스포츠평력문화와 축구심판활동에 대한 실상과 축구심판 행정의 세부 상황을 알아보고 축구심판들이 활동에 있어 장애물을 파악하여 심판문화에 긍정적인 방향과 안정적인 심판활동의 정착 활성화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질적 연구의 방법의 대표적인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하여 연구 대상자들에게 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 참여자들을 통하여 전남, 광주 권역의 축구 주말 축구 리그와 동호인 K5, K6, K7 축구 리그, 전국 중등 축구대회 참가하는 전남지역 축구심판들의 활동 과정 중에서 스포츠평력이 존재하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그 가운데 언어적 폭력이 가장 많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둘째,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며, 느끼는 스포츠평력이 절대 행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활동을 만들어 축구심판 사이에서 존중이 필요하며 축구심판 구성원들이 경각심을 가지며 심판문화 인식을 변화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 참여자들은 스포츠평력의 스트레스와 후유증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축구심판들을 위해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상담, 고충 관련 부서를 만들어서 외부 전문기관의 상담사를 초빙하여 적절한 전문 상담, 고충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

2. 제언

본 연구는 스포츠평역이 축구심판활동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규명하고,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부족했던 부분과 향후 후속 연구에서 발전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2023년 대한축구협회에 소속된 활동 심판 1, 2, 3급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조사 결과는 4, 5급 축구심판들에게 일반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4, 5급 심판을 확대하여 대상을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각 시도 지역 축구심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고 전남 소속으로 등록된 축구심판들만 조사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심판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는 아마추어 리그 심판의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여성 심판, 국제심판, K1, K2 심판에서 활동하는 심판들을 대상으로도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상조(1994). **코치론**. 서울: 대한미디어.

강효민(1998). **스포츠 집단의 경쟁/협동적 상호작용과 집단내 매력의 형성**. 미간행 국내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곽경만(2006). **프로축구심판과 국제축구심판들의 스트레스요인과 대처방안**. 미간행 국내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권순신(2020). **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운동선수 폭력에 관한 인식 분석**. 미간행 국내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국가인권위원회(2019).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려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김동규(2019). **스포츠폭력의 구조적 맥락과 향후 과제**. 미간행 국내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동진(2020). **축구심판의 권력거리성향과 직무과부하, 직무스트레스가 직업정체성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국내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김아영(2000). **관찰연구법**. 경기: 교육과학사.

김진영(2007). **축구심판에 대한 중·고등학교 여자축구 선수들의 인식도 조사 연구**. 미간행 국내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혁(2016). **스포츠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탐색**. 미간행 국내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김현수(2020). **학생선수 스포츠인권 정책 분석과 개선방안/(성)폭력 피해구제와 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체육철학회지, 28(3), 67-83.

김유정(2016). **미디어 폭력**.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배성(2019). **축구심판의 성격유형이 심판스트레스와 판정수행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국내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상우(2016). **축구심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국내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김성호(2007). **참여관찰에 의한 문화 공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김이정(2014). **축구심판의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혜림(2021). **스포츠폭력 경험 운동선수의 은퇴 후 사회적응 과정에 대한 분석**. 미간행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노옥뢰(2023). **운동선수의 스포츠폭력과 사회성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 미간행 국내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대한축구협회(2023). **축구심판 정의**. 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2023). **대한축구협회 축구심판 2023년 등록현황**.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2019). **스포츠인권보호 업무처리 매뉴**.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2019). **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2023). **대한체육회스포츠폭력예방가이드**.

https://www.sports.or.kr/home/010203/0000/view.do?T_IDX=78771.

문경수(2022). **축구심판 직무스트레스가 감정고갈,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국내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박해용(2000). 한국 스포츠 심판의 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검증. 미간행 국내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배민욱(2012). 교실의사소통의 원활함과 그 의미에 관한 참여관찰연구. 미간행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서경화, 안용규(2017). 폭력의 정체성 탐색을 통한 건전한 운동선수사회 만들기. 한국체육학회지, 25(5), 25-33.

신동열(2006). 중학교 축구선수의 합숙생활 연구. 미간행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유광욱, 원유병(2007).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폭력종류 및 폭력 원인. 한국체육학회지, 46(4), 105-116.

유진, 박해용(1999). 축구 심판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안.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1(1), 105-120.

이동성, 김영천(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20)2, 1-26.

이송희(2017). 참여관찰법을 활용한 지적장애인 부부의 자녀양육 일상생활. 미간행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용숙, 김영천(1999).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이정환(2020). 디비전리그에 참가하는 축구동호인의 심판판정인식이 운동몰입 및 참여지속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국내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오현강(2017). 프로축구 시민구단의 공공재적 가치와 역할 탐색. 미간행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임건우(2022). 과거 학교폭력 사건이 폭로된 스포츠선수의 부정적 평판과 스포츠

팬의 부정적 감정반응, 관람몰입의 구조적 관계. 미간행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장연환(2016). 축구심판의 자기효능감, 심판스트레스, 직무만족, 이직의도의 인과적 관계. 미간행 국내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지윤(2018). 학교폭력 방관자 하위유형 탐색: 공감, 자기효능감, 불안, 동조성, 초기부적응도식을 중심으로. 미간행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영국(2017).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면담 및 심층면담에 관한 비교 고찰. 열린교육연구, 25(1), 147-168.

조영달(2013). 한국 교사양성교육에 대한 성찰과 지향 : 해체와 재구성의 논리와 윤리. 한국교원교육연구, (30)4, 139-162.

조재성(2019). 심층면담 가이드 개발에 관한 방법적 탐구. 한국질적탐구학회, (5)1, 29-52.

조지음(2014). 한국 축구심판 양성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미간행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지음, 신재휴(2014). 한국 축구심판 양성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2)4, 97-112.

장연환, 박정근(2016). 한국 축구심판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코칭능력개발지, 13(3), 3-14.

최병문(2009). 스포츠 폭력의 유형과 대책.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2(4), 257-278.

최진철(2014). 한국축구발전을 위한 실천과제 모색. 미간행 국내석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대학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3). 스포츠 폭력 위험성과 예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홍덕기(2021). 스포츠 폭력 이제는 아웃. 서울특별시체육회.

홍혜빈(2023). 대학생의 원가족 내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노출경험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및 성적자기결정권의 차이. 미간행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IFAB(2023). Laws of the Game.

Weinberg, R. S., & Richardson, P. A. (1995). Psychological of facilitation. Champaign, Illinois: Leisure Press.